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

부산 경남지부장 운영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원목실장)

교육학 용어 중에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피그말리온 이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외모에도 문제가 있는데다 여인에 대한 편견으로 사랑은 포기하고 오직 조각에만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심혈을 기울여 완벽한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조각인지라 냇을 잃고 바라보다가 급기야는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꽃을 바치며 고운 옷을 입히고 조개껍질과 구슬 장식을 달아주는 등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듯 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축제일에 피그말리온은 여인상을 사랑하게 되었노라면서 그 여인상을 아내가 되게 해 달라고 빌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서 조각상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드디어 조각상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실제로 사용되게 된 것은 1968년 미국의 교육학자 로젠탈(Rosenthal)과 제이콥슨(Jacobson)이라는 두 사람이 중요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한 결과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 지능검사는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 후 두 사람은 각 반에서 약 20%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면서 이번에 실시한 지능검사 결과 ‘성적이나 지능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이라고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지능검사 결과와 대상

학생들과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연구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앞서의 것과 같은 지능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일반 학생들보다 실험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지적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 기대를 갖고 관심을 보여주며 칭찬했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기대로 사람을 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 이시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실망시켜드릴 일이 더 많건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그마한 칭찬거리만 있어도 천국 상급까지 들먹이시면서 우리를 추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호스피스의 자세 중에 이런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통의학에서 포기한 환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랑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의 의미를 찾고 남은 생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기대 없이 대하면 우리의 섬김은 건성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얼마든지 고귀한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대하면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호스피스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며 그 분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전인적으로 보살필 때 전인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아름다운 호스피스 사역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살롬